

생명의 삶
월요일
20.03.23.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공의로운 재판장들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 오늘의 본문

신명기 1:9~18

3. 본문 해설 & 적용하기

지도자 세운 일을 회고하는 모세 (1:9~15)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 조직의 발전적 개편을 시도하고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크게 늘어나 1차 인구 조사에서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민 1:46). 이는 아브라함에게 그후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13절)을 중간 리더로 뽑아 자신을 돕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40년 세월이 흐른 시점에 지도자들을 뽑았던 과거 일을 회고한 것은 출애굽 2세대를 각성시켜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동체 안에서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재판 원칙 (1:16~18)

교회든 사회든 지도자의 공정한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장으로 임명된 각 부장은 백성 사이에 다툼과 송사가 발생할 때 공정하게 재판할 책무가 있습니다. 판결의 공정성은 인종·신분·외모·귀천·친분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선 안 됩니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권력과 금력, 인간관계로 인해 왜곡된 재판을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작정 편들거나 두둔하는 것도 재판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출 23:3, 6). 한 사회에서 사법적 정의는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의 재판장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모세가 재판장들에게 명한 공정한 재판의 기준은 어떠했나요?

공정한 판단을 행하기 위해 내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 시대에 편견 없는 정의를 소망한다면 먼저 편견 없는 판단을 실천해야 한다.

- 제시 펜 루이스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돈과 권력, 인맥으로 인한 불법과 부정이 판치는 세상을 보며 탄식합니다. 저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또한 사회 모든 영역에 바르고 옳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친히 간섭해 주소서.

5. 주 기도

생명의 삶
화요일
20.03.24.

주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부정적인 말을 믿습니다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2. 오늘의 본문

신명기 1:19~33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가나안 땅 정탐 (1:19~25)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현장 답사뿐 아니라 그 땅을 향한 믿음의 시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아모리 산지로 통하는 가나안의 남쪽 경계 지역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가나안의 도로망과 성읍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정탐은 불신 행위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정당한 준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땅을 둘러본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좋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거대한 과일 꾸러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땅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이신 증거를 믿고 담대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것은 무엇이며, 이는 무엇을 확증하나요?
- 하나님이 그분 약속을 증거로 확고히 해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탐 결과에 대한 부정적 보고 (1:26~33)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가나안 땅이 좋다고 한 정탐꾼들 중 열 명은 곧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선발된 요원들이었음에도 그들은 견고한 요새와 장대한 사람들에게 압도당해 약속의 땅을 악평했습니다(민 13:32~33).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은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호소했지만 비관론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비관론이 팽배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 가끔은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된다.

- 딘 더 한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 낸 불신앙을 용서하소서. 사람의 말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늘 앞서 행하시는 미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거대하게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소서.

5. 주 기도

생명의 삶
수요일
20.03.25.

불순종과 고집으로는 무엇을 하든 필패합니다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2. 오늘의 본문

신명기 1:34~46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출애굽 1세대의 비극 (1:34~40)

믿음의 길을 저버린 불순종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대성통곡하며 원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세대'로 규정하시며 그들 원대로 해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의 시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약속의 땅을 포기한 출애굽 1세대와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불순종의 대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믿음의 전진을 주장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순종의 대가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에게는 가나안 입성이 허락됩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멸망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 약속을 누리게 합니다.

-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원망을 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요?

고집스러운 백성의 계속되는 반역 (1:41~46)

때늦은 후회를 하며 자의로 하는 순종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광야로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야 후회하며 올라가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순종은 징벌까지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임에도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 싸우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필패할 것을 의미합니다. 기어이 무기를 들고 올라간 백성은 아모리 족속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 38년간 광야에서 방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고집은 죄성의 발로입니다.

-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에게 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실 때 내가 보일 회개와 순종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지 않으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 조이 도우슨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갈렙의 모습보다 결솔히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이 제게 더 많음에 가슴 치며 애통합니다. '절대 순종'이 복과 저주를 가르는 중대한 선택임을 깨닫고, 매일 말씀 앞에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5. 주 기도

생명의 삶
목요일
20.03.26.

믿음의 행진에서 기억할 원칙, 형제와 이웃을 존중하라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2. 오늘의 본문

신명기 2:1~15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에돔 땅을 지날 때 깊이 삼가라 (2:1~7)

하나님은 살붙이인 형제 사이의 분쟁을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가까운 형제 국가와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 홍해를 향해 남쪽으로 내려와 38년 동안 세일산의 주변 광야를 맴돌았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 이제 북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방황이 끝나고 다시 믿음의 전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길에서 처음 만나게 된 민족은 에돔으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날 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스스로 깊이 삼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원칙을 준수해 에돔 땅을 평화롭게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와 이웃의 타전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복 주시고 지키십니다.

- 하나님이 에서의 자손과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형제 혹은 이웃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가 스스로 삼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모압 족속과 싸우지 말라 (2:8~15)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에돔 땅을 통과한 출애굽 2세대는 모압 땅으로 향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이 땅 역시 하나님이 모압에게 주신 땅이기에 힘으로 정복해선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 길을 돌아 에돔 북쪽 국경선인 세렛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38년 광야 생활 동안 모두 죽었습니다. 불순종한 세대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넌 것은 광야 생활에 중지부를 찍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 이스라엘 백성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필요했나요?
- 때가 되면 결국 이루어질 것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기다릴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권한을 절제할 때 더 큰 권한을 허락하신다.

- 웨인 코테이로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너무 길고 고되게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할 것과 삼갈 것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듣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화평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소서.

5. 주 기도

생명의 삶
금요일
20.03.27.

서로 화평할 대상과 싸워 이길 대상을 분별하라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2. 오늘의 본문

신명기 2:16~25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라 (2:16~23)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에 절대 순종함이 믿음이요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 번째 형제 국가인 암몬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모압처럼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거인족 르바임(혹은 삼숨뱀)을 물리치고 그 땅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르바임의 땅을 암몬에게 주기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과 모압을 지날 때와 마찬가지로 암몬 땅을 평화롭게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형제의 비옥한 땅이 좋아 보여도 그 땅을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욕심입니다. 언약 백성은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 암몬이 거인족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욕심을 낸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모리 족속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2:24-25)

한 민족의 패망은 대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모압 북쪽 국경선은 아르논 계곡입니다. 그 계곡 너머는 아모리 왕 시혼이 헤스본 성읍을 거점으로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과 인접한 형제 국가 암몬과는 화평하라고 하셨지만 아모리 족속과는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족속을 멸하라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가증한 풍속이 뿌리내리고 편만해져 더는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이 가득한 아모리 족속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창 15:16 참조). 그들이 심판받을 때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실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지혜와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아모리 족속과 싸우라고 명하셨을까요?
-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담대히 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제한과 경계를 정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 젠센 프랭클린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저 스스로 싸움의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과 충돌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전쟁에 용감하게 나서길 기도합니다. 세상 풍속과 죄로 가득한 제 안의 아모리 족속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5. 주 기도

생명의 삶
토요일
20.03.28.

언약 백성을 통해 악을 진멸하시는 하나님

1. 오늘의 찬송

찬송가 354장 주를 양모하는 자

2. 오늘의 본문

신명기 2:26~37

3. 본문해설 & 적용하기

완고한 헤스본 왕 시혼 (2:26~30)

완고한 마음은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지나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모압이 살던 땅이기에 모압 평지라도 불렀습니다(민 22:1). 모세는 헤스본 왕 시혼에게 평화의 사자를 보내 에돔과 모압, 암몬 땅을 지날 때처럼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혼은 애굽 왕 바로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악한 시혼을 쳐서 멸하시고자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 시혼이 모세의 평화 협정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아집과 완고함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스본에 대한 진멸 전쟁 (2:31~37)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멸'(히, 헤렘) 전쟁을 명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 같은 강력한 심판을 유황불, 홍수, 전쟁 등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 용사가 되셔서 유황불로 진멸 전쟁을 치르셨습니다(창 19:24~25). 이후 이스라엘이 진멸 전쟁의 수행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합니다. 진멸 전쟁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납득하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 모세의 평화 협정을 거부한 시혼과 그 백성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나요?
-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어 버릴 죄는 무엇인가요?

4. 오늘의 기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완강히 뿌리치는 악한 모습이 제게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모든 악하고 천한 생각과 행실을 단호히 끊어 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자유를 얻고 또 나누게 하소서.

5. 주 기도